

# 북스

## Books

### 보리 국어사전 발간

### 세밀화 2천여점 담아

남북 어린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우리말 사전이 나왔다. '남북과 북녘의 초·중등 학생들이 함께 보는 보리 국어사전'은 제작기간 8년, 사전편찬 작업에 투입된 인원만 수십 여명, 제작비도 20여억 원이 들었다.

변산공동체 대표인 윤규병씨가 기획과 감수를 맡은 사전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풀이, 용례 달기와 남북의 언어적 차이를 해소해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전에는 초등학교 전 교과서에 수록된 2만7천400여개 낱말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도서와 학급문집 500여권을 분석한 뒤 단어와 빈도, 풀이 등의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친 올림말(표제어) 4만여개가 실렸다.

또 글로 표현하기 힘든 사물의 생김새를 보여주게 위해 2천 400여점의 세밀화를 함께 수록했다. (보리·4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

# 교도소 전전...미국 청년의 한국 표류기

## 나는 한국에서 어른이 되었다

컬린 토머스 지음 김소정 옮김

"먼저 술을 한 잔씩 주더니 1시간쯤 지나 밥을 조금 줬다. 우리가 굶주려서 많이 먹으면 해로운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왕을 알현한 뒤 호위부대로 선발돼 한 달에 쌀 70온스(약 2kg)씩을 받았다. 조선 사람들은 우리의 힘 피부를 부러워했다."

1653년 제주도에 표착해 13년간 억류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네덜란드의 하멜이 남긴 '하멜 표류기'(1688년)는 당시 '은둔의 땅'이었던 조선에 발을 들인 최초의 서양인에 대한 기록이자 조선에 세계에 알린 '스테디 셀러'였다.

그로부터 340년 뒤인 2008년 5월, 3년 6개월 동안 한국 교도소에 '표류'했던 컬린 토마스는 한국, 한국인, 한국 교도소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한국에서 어른이 되었다'는 한국에서 불법 영어강사로 일하던 토마스가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 의정부교도소, 대전교도소를 거쳐 석방될 때까지 '한국 체험'을 상세히 회고한 책이다.

그는 "한국은 내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약하고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점을 깨닫게 했다"며 "삶의 고통과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한 곳"이라고 고백한다.

모험을 동경했던 스물셋 청년 토마스는 1993년 변화를 꿈꾸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온다. 그는 '한국에서는 무엇이든 해도 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단일한 생각으로 마약 '해시시'를 한국으로 들여오다 마약 밀수범으로 체포돼 3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한 순간 실수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던 토마스의 처절한 고백이 담긴 책을 읽다 보면 인생 말바닥을 체험해보지 않고선 느낄 수 없는 깨달음이 느껴진다.

처음 그는 '기껏 해시시 1kg 들여왔다고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하나'라고 생각했다. 또 가족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지고 돌아오는 나이를 기다려야 하는 감옥 내 유교문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씩 여유를 찾아가면서 권 살 넘어서

형·아유를 엄격히 따지면서도 서로 다독여 주고 사형 집행일에는 온종일 침묵으로 조의를 표하던 한국인 재소자들에게 따뜻한 정(情)을 느낀다.

그에게 자유를 빼앗은 교도소 생활 환경은 더없이 열악했지만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은 토마스는 달라졌다.

교도소는 함께 복역한 재소자들과 우정을 나누며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그를 가둔 한국은 그에게 또 다른 '인생학교'가 됐다.

"교도소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1천 가지도 넘는다는 걸 알았다. 바깥세상과 비교하는 동안에는 감옥에 억눌려 있거나 했다. 그러나 눈가리개를 한 말처럼 내 옆이 아니라 앞에 펼쳐진 삶에 집중하고, 외부가 아닌 교도소에 집중하게 되면서 더 이상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자유였다."(380쪽)

가혹하게 한국을 경험한 토마스는 "한국은 내게 세상의 끝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힘도 함께 주었다"며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글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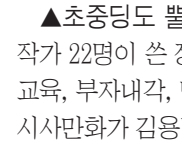
현재 토마스는 뉴욕에 머물면서 전기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북스코프·1만2천500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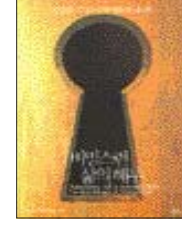
▲살아있는 지구=영국 BBC에 방송돼 화제가 됐던 자연 다큐멘터리. 남극에서 북극, 지구를 감싸는 모래리 사막에서 지구 가장 깊이 숨겨진 서식지 심해에 이르기까지 지구 구석구석을 탐험해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동식물의 생태를 담았다. <공리·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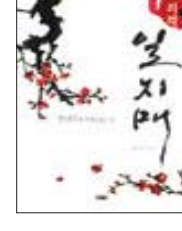
▲초충딩도 뿔났다=공산옥·김성동·한창훈·박구홍·김곰치 등 작가 22명이 쓴 정지풍자 콩트집. 대운하, 미국산 쇠고기, 영어 몰입 교육, 부자내과, 땅투기 등 이명박 정권 정책을 꼬집었다. 콩트마다 시사만화가 김용민의 한 칸짜리 만화가 덧붙는다. <화남·1만원>



▲꿈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라=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차 등정의 위업을 이룬 산악계의 '신화' 엄홍길의 첫 산악 산문집. 험난한 산을 오르면서 배우고 느꼈던 것, 산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마음의 숲·1만800원>



▲비밀스런 삶의 해부-거짓말, 그리고 이중생활의 심리학=미국 코넬대학교 정신의학과 임상 부교수인 개인 살초가 거짓말과 이중생활을 키워드로 여러 인물의 개인사를 설명했다. 저자가 상담을 통해 접한 다양한 임상 사례들을 조합해 소설처럼 엮었다. <에코리브르·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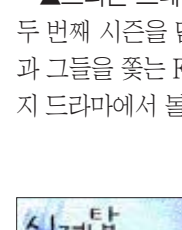
▲의적 일지매=정비석의 역사인물 소설. 탐관오리들과 부패한 관리들을 응징하는데 그치는 단순한 활극이 아니라 양반들의 악행과 박해받는 백성들에 초점을 맞춰 악자를 돕는 일지매의 활약을 담았다. <창해·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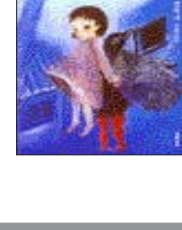
▲고정희의 바로크 정원 이야기=조경학자인 저자가 지난 2006년 펴냈던 '독일정원 이야기'에 이어 두번째 정원 이야기를 냈다. 프랑스 베르시 유 정원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관광 명소에서 접할 수 있는 바로크 정원의 본질과 숨은 뒷 이야기 등을 화보와 함께 소개했다. <나무도시·1만4천원>



▲갖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인생을 위하여=남성 패션잡지 'GQ KOREA' 편집장인 이종걸의 소평에 대한 탐구 보고서. 남자와 여자의 '사' 법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남성도 소평과 외모 가꾸기 등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위즈덤하우스·1만2천원>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2=인기 미국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의 두 번째 시즌을 담은 소설. 시즌 1에서 탈옥한 '최호필' 등 죄수 8명과 그들을 쫓는 FBI 요원 마흔, 미스터리 집단 '더 컴퍼니'의 음모까지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인물들의 심리와 배경을 묘사했다. <비제·1만3천원>



▲시계탑 외 1권='문학천재' 전아리가 지난해부터 올해 봄까지 청소년 문예지 '꽃'에 연재했던 작품을 모아 첫 장편소설 '시계탑'으로 출간했다. 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최근까지 각종 문학상 수상작 중 자신이 직접 고른 다면 10편을 모아 첫 창작집 '즐거움 장난'도 함께 펴냈다. <문학동네·9천원, 1만원>

#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의 불행한 삶

## 덕혜옹주

혼마야스코 지음 이훈 옮김

토쿠에 히메. 조선왕조 제 26대 국왕 고종의 딸이었던 그녀만큼 불행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 한국 이름 이덕혜(李德惠·사진). 우리가 흔히 덕혜옹주로 알고 있는 인물이다.

궁녀 몸에서 태어난 공주였지만 한 나라의 국왕을 아버지로 둔 덕에 행복하고 부유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녀는 고종이 갑자기 서거하자 겨우 12살의 나이에 일본에 의해 강제로 도쿄의 여자 학원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이후 그녀의 삶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불행은 그녀 곁을 떠나지 않는다.

일본인 여성사 연구가 혼마야스코가 쓴 '덕혜옹주'는 한국인이었지만 대부분의 삶을 일본에서 보내야 했던 불행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양한 자료와 조사를 통해 복원해낸 다큐멘터리다.

특히 지금까지의 덕혜옹주를 다룬 책과 드라마 등이 한국인의 시각이었던 데 반해 이 책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인의 눈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한 여자의 일생을 통해 불

행했던 한국근현대사를 되짚어 보는 책이기도 하다.

고종의 사랑스런 막내딸, 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는 10여 년 전 연극배우 윤석화가 연극 무대에 올리면서 일반인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인물이다. 그녀의 삶은 어떤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홀로 도쿄에 보내진 덕혜옹주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한층 내면으로만 숨어들어 갔고, 열 일곱 살 때 겪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와중에 대마번주의 후예인 소 타케유키 백작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첫 딸 마사에가 태어났지만 병이 다시 악화하면서 결국 이혼한다.

그녀는 1962년이 되어서야 한국에 도착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빠 이은이 죽었을 때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고 결국 1989년 참덕궁 낙산재에서 비극적인 삶을 마친다.

저자는 덕혜옹주의 삶을 찬찬히 묘사하는 것과 함께 한국인들이 간과했던 소 타케유키에 눈길을 돌린다. 조선 왕가의 막대한 지참금을 노리고 덕혜옹주와 사랑 없는 결혼을 했고 그녀를 비정하게 대했으며 병에 걸리자 정신병원으로 보냈다는 식으로 혹박 사들인들 세월의 덧없음을 느끼게 해준다. <역사공간·1만4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습과 소 타케유키 백작의 모습 등을 담은 수십 장의 낱은 흑백 사진들은 세월의 덧없음을 느끼게 해준다. <역사공간·1만4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HYUNJIN** 투자의 빛이 되겠습니다!  
**수완 신도시 현진에버빌**  
단지내 상가 특별 분양!

1단지 672세대 2단지 509세대

현진에버빌의 품격과 미래가치 이제 단지내 상가로 이어집니다.

은행융자대출 최고 40% 지원!

역시! 단지내상가도 현진에버빌입니다!

- 100M 이내 초·중·고교 초근거리 인접
- 수완 신도시의 미래가치와 프리미엄
- 대단지 아파트 단지내 독점적 상권
- 풍부한 배후 대단위 주거단지 인접

분양문의 062-361-8022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현진에버빌 모빌하우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분양사: (주)지음지산업개발

**地友 부동산컨설팅**  
봉선동 남구청앞 슬퍼터넷 상가 ☎ 062) 655-0063 011-9609-9500

- ◆ 믿음,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동산
- ◆ 광주·전남 전지역 정확한 권리 분석
- ◆ 10년간 경·공매 실전경험으로 철저한 수익성분석
- ◆ 투자자의 마음으로 고객을 상담하겠습니다.

※부동산 제테크는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과 과정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地友와 함께 직접 실무와 경험하는 자세가 제테크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 남녀직원모집

**대표 임근철**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공매 분석사  
·부동산 권리 분석사  
·부동산 분양 상담사  
·초대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수완 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토지매매**

- ▶수완지구 333-1(변경가능) 60㎡ 대로변 상업용지, 3만도
- ▶주거용인형 720㎡ 3.3㎡당 600만원
- ▶수완지구 333-3 60㎡ 대로변 상업용지, 아파트단지내 720㎡ 3.3㎡당 600만원
- ▶수완지구 아파트 단지내 전문 인구 상업용지 500㎡ 평당 190만
- ▶수완지구 35㎡ 대로변 버스정류장 앞 상업용지 820㎡ 평당 300만
- ▶광산구 수완동 35㎡ 대로변 자연녹지 1,762㎡ 4,231㎡ 평당 700(분할?)
- ▶광산구 신안동 대지 374㎡ 평당 30만원 주거지역 (건물있음)
- ▶광산구 신안동 관송간대로변 지하철도 앞 상업용지 대지 286㎡ 매가 2억 9,000만

**상가매매**

- ▶광산구 유계동 124.300㎡ 평당 41,000원
- ▶광주 북구 동림동 6차선 대로변 대지 1,533㎡ 3.3㎡당 420만원
- ▶광주 서구 유촌동 삼산동지 4,000㎡ 30㎡ 계획도로 90㎡ 평당 24만원
- ▶광산구 진월동 대로변 3,240㎡ 평당 42,000원

**상가임대**

- ▶북구 양산동 백제개발지구내 증심상권 1층 124㎡ 보증금 5,000원 월200만
- ▶2층 248㎡ 보증금 4천 월170만
- ▶3층 248㎡ 보증금 4천 월150만

**노블메디칼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증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자점, 안경점, 부동산, 이동통신점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인과, 피부과(비인후과) 등 임대용수도대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라마켓 임점확정  
2층 파파코스 피자 임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①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①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충전소 거래 전문

**생계형, 음식, 호프, 고쳐구이 전문 컨설팅**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 062-374-2860 · 010-9115-4467

기획·매뉴개발·매각상담·결정진단·인테리어

- ▶서구 매일동 보증금 5천만원 월1백4십만
- ▶서구 화정동 보증금 1천2백만 월5십만
- ▶서구 생촌동 보증금 2천만 월1백2십만
- ▶서구 풍암동 보증금 5천만 월7십만
- ▶서구 차평동 297㎡ 보증금 3천만 월3백4십만
- ▶서구 미륵동 주차장 990㎡ 보증금 3천만 월1백4십만
- ▶광산구 흑석동 주차장 990㎡ 보증금 2천만 월1백5십만
-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 ▶북구 양산동 보증금 1억 월600만원
-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 월80만원
- ▶광산구 쌍암동 보증금 6천 월300만원
- ▶서구 금호동 보증금 1억 월300만원
- ▶서구 화정동 보증금 1,200 월60만원

※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별도

**영업이 부진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기획에서 매뉴개발 경영 노하우 전수!  
식당 전문 컨설팅과 상담하십시오.

※생계형 신규영업 상담비용은 2천만원에서 10%까지 다양하게 할인 가능합니다.